

TUNING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편(Tuning I ~ X)의 공연을 가져왔다. 한 주제로 며 공연마다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찾아가는 작업, Tuning -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류닝 훈라, 질서, 야누스 - 그것들을 통해 자아의 이 시대의 정체성을 응시며 보고자 한다. Tuning - V(wind), W(water), V(fire), D(earth), X(tree) - 부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연과 투영하며 직접하고 있다.

주술적 힘이 다양하게 현대화된
변주의 특징으로 평가받은
TUNING 작품들,
박은화 춤의 대명사이다.

그에게 조율은
생생에 관조觀照였다.

YouTube park eunhwa

부산대학교 자유과대학인 학생연극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주관
박은화 무용단
후원
한국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대학교
한국현대미술연구소, 현대무용단 자유

인무
박은화
무용수
김현정, 안선희, 허종원, 김다영
김대정, 이나라, 장지은, 황지현
인희주, 임지민, 조석근, 최유정
박은화

음악 Nara Yuj 柳
음악감독 주창근
영상디자이너 사왕범(서울예술대 교수)
영상연출 김해운(한서대 교수)
영상제작 박성연
무대미술 송경호
의상 최민숙
조명 이희우
무대감독 이정남
사진·기록 박정현
음향 진행애
출장형 홀소리
사무 안희주

영화의전당 EUNHWA CENTER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박은화 현대춤
the STONE

2013년 11월 5일(화) 오후 8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안무자의 통과제는 자연에너지로써 현대춤 움직임의 선택이 발견하는 일이다. 자연과 더불어 하는 야외공연,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 주변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 다양한 측면으로 주제를 풀어간다.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사)한국현대춤연구의 부회장, 부산국제극촌총감독 예술감독, 현대무용단(자유)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돌은
허공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존재
그 작은 존재의 큰 에너지

우주의 몸 부림
우리의 조상
나의 등며
생명의 삶

구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깨어지면서 더욱 뭉쳐지는
시간을 품은 공간을 바라보게 하고
우주생성의 기원이며
인류사의 시작을
교감하게 하는 돌, 물, 삶.

Tuning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수로는 십삼년. 작품으로는 열 한번째이다. 이모록 긴시간 튜닝에 매달리는 내 마음은 무엇이지?

매순간 찌꺼기 없는 순수의 조율로 나의 영혼을 놓아두고 싶고, 또한 Tuning의 자율로 나에게 세월이란 있을 수 없고, 환경이 따로없고,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오로지 서로 상생하며 넘실거리는 기운만이 가득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구도의 길에 새로운 제목을 찾지 못한 것뿐이다.
이번 돌 stone 작업 중 느린 움직임 속에서 숨 쉬는 몸 구석 구석을 만나며 깨어나는 몸. 신이 머무는 몸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차리는 순간 참 행복했다.

시간과 공간을 나눌 무용수들의 에너지. 모든 스텝진, 관객,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처럼삼 새로운 바람을 만나는 시절
안무자 박은화

하나의 돌이
창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듯
고요한 돌은
나에게 머물러
나를 바라보게 한다.

숨쉬는 돌

나의 등뼈,
내 몸의 공간이 보게하는 시간성.
그 속에 숨쉬는
우주와 인류역사를 만나다.

뜨거운 돌

세월의 강물에 붉게 움틀거리는
몸부림의 덩어리.
쏟아진다, 생명의 등뼈들이
평생 품어온 가슴의
깊은 돌을 꺼내어
저리저리 쌓아 두는구나.

누워있는 돌

허공의 아주 작은 존재.
물 속에서 몸을 닦고
불 속에서 몸을 녹인다.

하늘이 되고 땅이 되어
고요한 천지에
에너지로 누워있는

돌과 만나다.



앉아있는 돌

손톱사이로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이 앉아있는 돌을
마주한다. 내 등을 두드리고 내 배 안을 두드리지만
세상 속에 빠져있는 시끄러운 머리는 무겁지만 하다.
돌은 거만히 있으려는데 왜 자꾸 부딪혀 소리를 내며
하는가. 들숨도 날숨도 머금고 서글프다. / 안선희

보이지 않는 돌

앞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아닌 너의 몸이 보고 싶다.
똥근 얼룩을 한 포 다룬 얼굴...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딘지
알 수 없다. 내가 움직여 본다. 무 놓야 실컷 물어본다.
오래된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딱딱해진 그 등은 이버지
있다. 가족이었다. 사랑이었다. 마음의 정적을 보았을 때,
돌은 나의 돌이었고, 내 눈앞에 있었다. / 김현정



춤 추는 돌

돌이 나를 깨우니 내가 돌이었다. 하지만 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다가가 본다.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여 본다. 마치 내 것 이었던
것처럼 여겨도 본다. 돌이 나를 본다. 돌은 어느새
나의 중심을 잡고 있다. 바라볼 때의 무거운 무게
일 때의 가벼움. 내 중심에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가벼웁은 행복이 된다. 행복은 삶이 된다. 삶은 다시
허공의 날 깨우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 리종원